

코로나19 확산방지 '시민협조 절실' 꽃다발 선물하기 릴레이 캠페인

군산시장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것"

군산시는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지역 내 감염 확진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3일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을 '경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에 24일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군산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더욱 가중되어가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시민여러분들의 침착하고 명명한 협조가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와 관련 정부의 지침과 군산시 페이스북을 통해 안내하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고비는 향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라며



24일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감염전파를 차단하고 지역 내 소멸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다녀온 시민들은 반드시 보건소에 자진 신고해 주시고 해외 방문 이력이나 확진자와의 이동 동선만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위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임준 군산시장은 최근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시민들을 전수 조사해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중심으로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등 의료 단체와 협조를 통해 24시간 비상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원광대병원 윤권하 병원장, 코로나19 피해 농가 돕기 동참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에서는 지난 21일 윤권하 병원장이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농가 돕기 꽃다발 선물하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이 운동은 지난 7일 김경수 도지사가 꽃다발 선물하기 캠페인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는데 13일 시·도지사 영상 임시 총회에서 제안된 릴레이 캠페인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꽃다발 선물하기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활발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김 지사도 현장 점검을 하던 중 화훼 농가에서 사온 소국 한다발을 들고 기념 사진을 찍으며 꽃다발 선물하기 릴레이 캠페인을 제안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캠페인은 시·도지사, 교육감, 의회위원장, 공공 기관장, 기초 자치단체장에게 꽃다발 선물이 도착하면 받은 주자가 10일 안에 인증사진, 영상으로 동참 호소와 함께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 행사는 졸업식과 입학식 등의 행사로 한창 매출이 집중되어야 할 시기에 코로나 19 감염병 여파로 전국의 경제, 산업 부문과 더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캠페인인데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상호 돕고 사는 우리의 국민성을 보여주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지난 21일 (주)현대자동차로부터 꽃다발 선물하기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지목된 윤권하 원광대학교병원장은 이날 인증을 하면서 다음 주자로 익산시장과 익산경찰서장을 다음 릴레이 주자로 지목했다. 윤권하 원광대학교병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병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작은 꽃다발 하나가 힘든 이웃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자신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간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진 사회·경제도 무난히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코로나19 예방 최고 단계 감염 유입 차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전국으로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한층 강화된 예방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군산시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경로당 운영을 상황 진정시까지 일시 중단하고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의 집단모임·행사 등으로 인한 감염증 전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유도하고 있다. 또한 종교단체를 통한 감염증 확산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전 읍면동 관내 종교단체 367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종교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을 독려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수칙의 내용을 담은 전단지 12만장, 포스터 5천장을 제작하여 관과소 읍면동에 배포하고, 현수막 2백여 장을 제작하여 시 전역에 게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철벽경비 체계 구축을 위해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지 방문이나 행사·집회 등은 취소 또는 연기할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군산시는 2020년 2월 중 대구·경북지역에 다녀오신 분이나 다녀오신 분과 접촉하신 분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소로 연락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가치 삼시다' 전통시장 활성화 적극 홍보

군산시, 경제 살리기 온 힘

군산시는 대내외적인 경기 침체와 함께 최근 들어 발생한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유관기관 및 업체와 함께 코로나 발병으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경기 활성화와 매출증대를 위해 '가치 삼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

해 운영 중이다.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내 음식점 애용과 장보기 체험이며 군산시, 군산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업체 등 76개소에 전통시장 애용을 위한 홍보를 벌이고 있다. 전통시장 음식점 애용 및 장보기 체험은 향후 3개월간 지속하며, 군산 시청 및 유관기관은 매월 둘째·넷째 금요일에 전통시장 음식점을 애용하고, 특히 군산시청의 경제항만혁신국 6개 부서는 주1회 이상 7개 시장의 음식점과 장보기를 시행하고 있다.

북대만 군산시 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 발병으로 50% 이상 매출이 감소하여 전통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등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길이라며 더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코로나19 발병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며 "우리는 '가치 삼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작은 힘이지만, 전통시장 장보기 등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보건소, 코로나19 확산 방지위해 일반 업무 중단

익산시보건소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와 방역을 위해 일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특히 진료, 예방접종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는 보건소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운영되면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24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추후 통보 시까지 물리치료를 포함한 보건소 진료와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의 일반 업무를 중단한다. 또한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도 잠정 중단되며 보건증 수령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일반 검진 등이 필요한 민원인은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의심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으며 선별진료소가 24시간 운영된다. 현재 지역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번 발생한 도내 2번째 코로나19 확진자(김제시 거주)

의 이동 경로에 익산 지역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시는 신천지 익산(평화)교회 집회장 임시폐쇄와 자체 소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손소독제와 일회용마스크 지급, 전 지역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또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련 문의 전화와 방문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실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는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 지역 방역활동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와 관련된 안내사항은 1339와 익산시 보건소(859-7485~87)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시-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철도관광상품 개발 MOU

익산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북본부(본부장 김광모)는 24일 익산 시청에서 업무 협약을 갖고 '500만 관광도시 익산 조성' 및 '철도 관광상품 활성화'를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지역관광 연계 철도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 철도 관광상품 판매 및 홍보 ▲ 철도 관광상품 운영 시 렌터카 및 시티투어버스 지원 등에 협력하고 관련 업무를 함께 추진해 나가게 된다. 코레일 전북본부는 지난 18일 기자와 렌터카 연계 상품인 '렌터카 타고 떠나는 익산 GoBack 여행'을 출시하여 판매·운영 중에 있으며, 익산시

는 상품 운영에 따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역은 전국 KTX역 중에서 환승객이 가장 많은 역 중의 하나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철도를 이용하여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익산시 내에 있는 관광지를 방문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렌터카, 시티투어버스 등 다양한 철도 연계 상품들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내 경로당 임시폐쇄

군산시는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경로당 517개소를 재차 임시폐쇄를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고 지역사회 감염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진정시까지 관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모든 경로당을 임시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모든 517개소 읍면동 경로당에 대해서 자체 살균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감염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